

민주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판 ‘요동’

민형배·최영호 시장 후보 단일화 강기정 후보·윤장현 시장 포함 ‘반 이용섭’ 연대 가능성 주목

지사 경선 장만재 움직임 변수 입당 안되면 무소속 출마할 듯

6·1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 광주시장, 전남지사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나섰던 민형배·최영호 두 예비후보가 28일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경선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3차 연대를 주창해 온 강기정 후보와 단일화까지 접쳐지면서 향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후보 단일화’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남지사 경선에서는 ‘다크호스’로 꼽히던 이상재 전 전남도교육청의 민주당 입당 여부가 경선 변수로 꼽히고 있다. 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래 논의와 속의 끝에 ‘광주의 명예를 구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두 후보가 통 큰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단일화 선언문을 통해 “당원 명부를 불법 유회해 공경 경선을 바닥부터 뒤흔든 후보가 단일화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광주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력을 가진 후보가 있음에도 당에 의한 어떠한 검증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결선투표 유구도 반이용섭 지지 않는 등 장차 투표 상황을 두루 고려하여 두 후보가 우선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만간 후보 선호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를 2개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 5개 자치구별로 20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4월 9일까지 단일후보를 결정한다.

선호도 조사를 포함한 단일후보 결정방범은 광주 시민사회와 양측 후보가 참여한 실무협의기구에서 정하기로 했다. 두 후보는 특히 자신들의 단일화 일정을 고려해 민주당 중앙당의 경선일정을 다음 달 9일



무안~푸동 노선 운항 재개 28일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을 출발한 관광객들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무안~푸동 노선은 ‘한중 사드 갈등’의 유탄을 맞아 지난해 5월 운항이 중단됐지만, 중국 동방항공이 11개월만에 재운항을 시작하면서 양국간 교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이후로 연기에 줄 것도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강기정 후보와의 추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일화를 발표하고 추진하는 시점을 놓고 강기정 후보와 의견이 다를 뿐 3명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를 제외하고 윤장현 시장 지지자 포함한 ‘반이용섭 연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단일화는 중앙당의 광주시장 경선이 오는 29일 여론조사를 등을 통해 사실상 시작되는데다, 후보 간 지역별 지지기반이 다르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배울 조정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전남지사 경선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입당이 보류된 장 전 교육감의 움직임이 변수다. 장 전 교육감은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의 입당과 경선 참여 여부

가 결정된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당에 남아 백의중군을 할지, 깃발을 들고 일어설지는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거취 문제는 민주당 경선에 달려 있다”며 공을 다시 최고위위원에 던진 셈이다. 최고위는 이날 장 전 교육감 입당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보류됐고, 30일 최고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장 전 교육감의 입당 문제가 최고위에서 통과되고 경선 참여가 이뤄지면 다면 김영록·신정훈·장만재 3파전의 경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장 전 교육감이 입당이 불투명해지거나 경선 참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점쳐진다. 장 전 교육감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초정당원 등 입당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5가지 사안에 대해 일일이 해명한 뒤 “최고위에 충분히 소명했다. 오늘 입당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여러 사정 상 30일로 미뤄진 것 같다”며 “당이나 나를 버리지(입당 불허) 않는 한 선택이 불리하다고 먼저 발을 빼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메드라인·GE·친환경자동차

광주시 ‘3대 기업 유치’ 가시화

- 메드라인 4월 중 광주공장 착공기로
- GE 광주에 기술·연구센터 건립
- 친환경자동차 기업 투자의향서 본격 접수

100여년 전 ‘녹색 수술복’을 탄생시킨 글로벌 의류기업 ‘메드라인(Medline)’과 발명가 에디슨이 만든 제너럴 일렉트 로닉스(GE),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친환경자동차 등 광주의 ‘3대 기업유치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GE는 광주에 기술·연구센터를 건립, ‘고압직류 분야’ 핵심 기술을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의류기업의 광주 공장 건설로 지역 관련 업계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8일 박병규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감사 등으로 일정이 다소 늦춰졌던 메드라인, 전기차, GE의 광주 유치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으겠다”면서 “유효한 감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들도 복귀, 마무리를 짓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메드라인은 현재 광주공장 설립을 위해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있으며 이르면 4월 중 광주빛그린산업단지 의료용품 멸균 및 패키징 공

을 처리할 공장 착공에 나서 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메드라인은 연매출 92억 달러(한화 10조원 규모)에 이르며 세계 90개국에서 1만5000명이 직원을 근무하고 있다. 여기서 최소 35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한국전력의 사장 선임이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되면서 GE의 투자 유치가 구체화되고 있다. GE는 한전과 함께 5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 기술지원센터, 연구개발센터를 조성한다. 이들 기관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고압 직류’ 기술은 중추 연구하게 된다. 고압직류 기술은 집중시각에서만 2025년 시장 규모가 9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에너지 기술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 남구내지중단지 투자자는 빛가람혁신도시의 한전과 관련 에너지 기업들, 광주지역의 학계와 연구기관을 묶는 에너지 핵심기술 클러스터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에서도 관심이 크다. 광주지역 자동차 산업에 힘을 불어넣어 줄 친환경자동차 기업 유치도 광주시가 4월 중으로 기업의 투자의향서를 본격 접수받으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광주시는 투자의향기공모 본격적인 투자규모 및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상재 시 전략산업본부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투자하는 합작투자를 자동차 업체에 제세해 호응을 얻고 있다. 노사가 협력하는 일자리 모델인 ‘공중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도 있어 조만간 친환경자동차 투자 업체가 결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최순실, 세월호 당일 청와대서 대책회의 했다

검찰, 보고 지시 시간 조작 확인

첫 보고 오전 10시보다 20분 늦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빨라도 전 정부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가량이 늦은 오전 10시 20분’였었던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관런기사 3편〉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간을 모두 사후 조작했다며 검찰은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이 강경우 전 국가안보실장에 전화로 ‘총력 구조’를 지시한 시각도 오전 10시 15분이 아니라 오전 10시 22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당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 박 전 대통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검찰은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책임을 물어 강경우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간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강경우·김기춘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명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거부해 그를 기소 중지하고 인턴플 직책수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4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금호타이어 내일이 '데드라인' ▶14면 KIA 포수 '안방 전성' 시작됐다 ▶20면

이 광고는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반대선언 광고입니다. 광주전남시도민 4,259명이 3월9일부터 24일까지 모아주신 성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금호타이어를 사서 운전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호타이어는 1941년 4월 16일 창립을 기념하여 77주년을 맞이합니다. 77년 동안 금호타이어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을 도와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항상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추구하며,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타이어를 개발하여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돕겠습니다. 금호타이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동반자입니다.

금호타이어는 1941년 4월 16일 창립을 기념하여 77주년을 맞이합니다. 77년 동안 금호타이어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을 도와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항상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추구하며,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타이어를 개발하여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돕겠습니다. 금호타이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동반자입니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 구조조정 저지!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